

이번 학기 우리신문은 학부 이후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에서 연구자의 삶을 선택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이번 신문에서는 소금쟁이를 통해 진화의 과정과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는 생물학과 진화생태전공 이병호(석박사통합과정 9기) 씨를 만났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월세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상황이다.

대학주보

“그냥 교양수업 아닌가요?” 희미해진 후마의 의미 학생 불만은 ‘평가’와 ‘강의’ 방식에 집중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창간 71주년 특별기획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찬사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신문은 15년이 흐른 지금, 교양교육의 전범(典範: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으로 불리던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짚고자 한다. 이번 1회차에선 후마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다. 이를 위해 대량메일 시스템을 통해 재학생 168명의 답변을 수집했으며, 후마 교과목을 수강한 39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15년 지난 후마, 학생 시각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11년 국내 최초로 단과대 형태로 설립된 독립 교양기구나. 서울캠 교양학부, 국제캠 교양학부, 학부대학 세 곳에

의해 분산 관리되던 학부 교양교육을 후마를 통해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한 실용학문의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본연의 모습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뜻도 있었다.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공개포럼을 진행하는 등 노력 끝에 완성한 후마는 그해 9월 17일 출범식에 이어 2011년부터 우리학교에 도입됐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간의 가치 탐색’ 2개뿐이던 중

핵교과는 6개로 늘었으며, 학생은 물론 교수진까지 구성원 변화도 크다.

우리신문은 설립 당시의 후마 철학을 살펴보고, 초기 설정한 교육 방향성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되돌아보기로 했다.

다만 교육환경은 끊임없이 변화기에 15년 전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후마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공론장에 올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다. 우선 학생들은 현재의 후마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봤다.

“그냥 교양수업 아닌가요?” 후마 정체성 소실

후마를 통한 교양교육 혁신은 국내에선 새로운 시도였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도입 두 번째 해였던 2012년엔 QS아시아 대학평가 인문학 분야에서 18위로 올랐을 만큼 후마는 인정받았고, 경희를 대표하는 간판이었다.

다만 지금도 그렇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학교를 대표하는 브랜드 상징이라기엔 “후마를 잘 모른다”는 학생이 많았다.

3면에 계속 →

문과대 학생회비 사적 운용 의혹, 감사위 출범 학생회장, 부적절 사용 인정 ‘사과’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문과대 학생회의 학생회비 사적 운용을 조사하기 위한 문과대학 감사위원회가 6일 제1차 임시 문과대학생대표자회의(문학대회) 의결을 통해 인준됐다.

6일 오후 7시 30분, 제1차 임시 문학대회가 문과대 101호에서 열렸다. 문학대회 의장을 겸하는 제58대 문과대 황희원(응용영어통번역학 2024) 회장을 포함해 24명의 문학대회 인원이 참석했다. 또한 5일 문과대학운영위원회(문운위) 의결을 통해 참석할 수 있게 된 일반 문과대 학생도 30명 이상 참관했다.

심의 및 의결 안건 중 ‘문과대학 감사위원회 구성 인준’ 건이 발의된 것은 지난 4월 28일 제10차 문운위 회의에서 학생회의 재정 운용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학생회비 사업과 관련 없는 약 40만 원 상당의 13건 결제내역이 있었다. 회장단은 4월 15일 이를 인지한 이후 부적절한 사용 금액에 대해 보전했다. 이후 4월 28일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문운위 성원들은 곧바로 감사위원회 TF 팀을 꾸렸다. TF 팀장을 맡았던 국어국문학과 이승훈(국어국문학 2025) 학생회장은 “범위를 벗어난 지출, 사용 목적이 불명확한 지출, 사적 운영이 의심되는 정황 등 복수의 문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학생회비는 단과대학 학부 전체의 공동 자산이라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는 필수적 요소”라며 “문과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회는 문과대 감사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지난달 28일엔 13건 중 4건을 인정했고 나머지 건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이날은 13건을 모두 본인의 사용으로 인정했다. (사진=이환희 기자)

문과대 학생회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지적된 13건의 지출 내역엔 황 회장이 서울캠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던 당시 결제한 비대위 뒤풀이 비용 3건과 여러 건의 택시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지난달 28일엔 13건

중 4건을 인정했고 나머지 건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이날은 13건을 모두 본인의 사용으로 인정했다. 이어 “문운위 회의 이후로 다시 결제내역과 다녔던 곳을 확인하면서 제가 쓴 걸로 보여서 말이 조금 달라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

다”며 “더 알아보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발언했던 점에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이번 사안은 명백하게 부적절한 학생회비 사용이며 공적 자금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본인의 판단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으로 유용할 목적은 아니었으나 엄격하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학생회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문과대 감사위원회 구성 인준’ 중 첫 번째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준’은 국문과 이 회장이 위원장으로 추천받아 진행됐다. 의결 결과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어진 ‘감사위원회 위원 인준’ 의결에선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가결돼 감사위원회가 발족됐다.

끝으로 황 회장은 “감사위원회가 요청하는 절차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중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사과드린다”며 21시 12분 폐회를 선언했다. 감사위원장을 맡은 이 회장은 “문과대 학생회칙에 따라 14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쇄 매체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